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37세 노장의 기적'

이봉주 서울국제마라톤 우승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7·삼성전자)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한국 마라톤에 한 줄기 환한 빛을 비추었다.

이봉주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잠실 코스에서 열린 2007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78회 동아마라톤대회 남자부 42.195㎞ 레이스에서 막판 기적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2시간8분04초에 결승선을 끊어 폴 키프로프 키루이(케냐·2시간8분29초)를 제치고 우승했다.

생애 35번째 풀코스를 완주한 이봉주의 이날 기록은 2000년 도쿄마라톤에서 세운 자신의 한국기록(2시간7분20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한국 4위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펼쳐진 레이스에서 한국 마라토너가 낸 최고 기록이다.

한국 선수로는 1999년 로테르담 마라톤에서 김이용(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시간7분49초를 찍은 이후 8년 만에 가장 좋은 기록.

이봉주는 개인 통산 세 번째 빠른 기록을 37세의 나이에 만들어냈다. 2007년 시즌 세계 레이스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이다.

선두와 50m 뒤처져 달리다
40㎞지점서 대역전 스퍼트
개인통산 세번째 빠른 기록
침체된 한국 마라톤에 활력

이봉주는 2001년 보스턴마라톤 이후 6년 만에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했다. 서울국제마라톤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도 200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봉주는 상금 8만달러를 받았다.

서른 일곱의 나이를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역전 드라마였다.

마라톤 출발 기온으로는 최적에 해당하는 3.4℃의 다소 쌀쌀한 날씨에 세종로 사거리를 출발한 이봉주는 키루이, 라반 킵켐보이, 에드윈 코멘 등 케냐 철각들과 조심스럽게 선두권을 유지해 나갔다.

35㎞ 지점까지 네 명이 선두권을 형성했으나 잠실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넘어오는 36㎞ 지점에서 2시간6분44초의 개인 기록을 지닌 세계 정상급 마라토너 키루이가 갑자기 스퍼트를 하기 시작했다.

툭툭 치고 나가는 케냐 선수 특유의 스피드에 이봉주는 50m 가량 처졌다. 이봉주는 그러나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페이스를 그대로 지키며 기회를 엿봤다.

승부처는 40㎞를 막 지난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

이봉주는 키루이가 약간 지친 기색을 내비치자 성큼성큼 간격을 줄였다. 그리고 40.65㎞에서 키루이를 단숨에 따라잡고 기세를 몰아 잠실주경기장으로 골인했다.

마지막 순간 2시간7분대까지 기록 단축을 노려본 이봉주는 아쉽게 4초를 넘기고 말았지만 키루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피니시라인을 끊었다.

3위는 2시간8분38초를 뛴 킵켐보이가 차지했고 다른 한국 선수 중에는 이명승(국군체육부대)이 2시간14분48초로 9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웨이 야난(중국)이 2시간23분12초에 들어와 로즈 체루이요트(케냐·2시간27분25초)를 제치고 우승했다. 채은희(한국수자원공사)는 2시간32분01초로 6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18일 서울 광화문~잠실 코스에서 열린 '2007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78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막판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2시간8분04초의 기록으로 골인한 뒤 환호하고 있다. /동아일보제공

박지성이 17일 밤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볼턴 원더러스와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한경기서 두골 쐈다

볼턴전 선제·세번째골 성공… 시즌 4호째

'신형엔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시즌 3, 4호골을 한 번에 터트렸다.

박지성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로는 처음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뽑아내는 맹활약을 펼쳤다.

박지성은 17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볼턴 원더러스와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반 14분 선제골과 전반 25분 팀의 세 번째 골로 연속 득점포를 쏘아올렸다.

맨유는 박지성과 나란히 두 골을 뽑아낸 웨인 루니의 활약을 앞세워 4-1 대승을 거둬 이번 시즌 24승3무3패(승점75)로 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지난달 11일 찰턴 애슬레틱전에서 헤딩으로 시즌 2호 골을 뽑아낸 데 이어 34일 만에 정규리그 3, 4호 골을 연거푸 터트린 박지성은 설기현(레딩·3골)을 넘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이밖에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18일 영국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에서 나이지리아 공격수 아예그베니 야쿠부와 함께 투톱으로 출격, 전반을 소화한 뒤 교체됐다. 이동국은 지난 달 25일 레딩FC전에서 데뷔한 뒤 다섯 경기만에 첫 선발 출전했으나, 팀은 0-2로 패했다.

이영표(30·토트넘)는 왓포드와 홈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폴 스톨테리와 교체된 후반 35분까지 80분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3-1 승리를 거뒀다.

설기현(28.레딩)은 포츠머스와 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정규리그 6경기 연속 엔트리 제외됐고, 레딩은 포츠머스와 득점없이 비겼다.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17일 경기가 끝난 뒤 박지성에게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줬다.

박지성은 또 잉글랜드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가 선정한 주간 베스트 일레븐에서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뽑혔다.

한편 박지성과 이동국은 맞대결 기회를 다시 잡게 됐다.

맨유와 미들즈브러는 20일 오전 5시(이하 한국시간) 맨유 홈구장인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2006~2007 FA(축구협회)컵 8강전 재경기를 벌인다.

이 경기는 지난 11일 미들즈브러 홈에서 열린 8강전에서 2-2로 비겼기 때문에 재경기로 치러지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4일만에 되찾은 골 감각… '맨유 골잡이' 도약 기대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골 감각을 둘러싼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처음 '한 경기 두 골'을 뽑아낸 박지성은 17일 밤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턴 원더러스와 홈 경기에서 처음엔 아쉬운 장면도 연출했다.

전반 6분 가브리엘 에인세의 크로스에 이어진 라이언 긱스의 헤딩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볼은 박지성 앞에 떨어졌다.

발을 갖다대면 골로 연결될 수 있던 상황에서 지나치게 탄력이 붙은 박지성의 슬라이딩 슛은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가고 말았다.

박지성 '한경기 두골' 의미

그대로 끝났다면 또 박지성의 골 감각이 도마위에 오를 뻔했다. 하지만 박지성은 달라졌다.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쉼 없이 문전에 침투했고 정확한 오른발 인사이드 슛과 감각적인 발바닥 슛으로 두 번 연속 네트를 흔들었다.

박지성이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뽑아낸 것은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뛰던 2005년 3월 13일 아도 덴하그전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해 가을 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석 달을 쉰 박지성은 정규리그 4호골을 기록함으로써 이번 시즌 골 적중률에서 맨유의 다른 공격수들에 뒤지지 않게 됐다.

볼턴전까지 24승째를 올린 맨유는 2006~2007 시즌 무려 70골을 뽑아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웨인 루니가 각각 16골, 12골로 팀내 득점 1,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동안 두 골에 머물고 있던 박지성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상대 진영을 휘젓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득점력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정규리그 선발 출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맨유의 골잡이로 단단히 한 몫을 해내 논란을 잠재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안 풀린다

전남 첫 승 또 실패
광주 3연패 늪 허덕

전남드래곤즈가 올 시즌 첫 승 신고에 또 실패했다.

전남은 18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7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3차전에서 용병 듀엣 '산드로'의 연속골로 다 잡았던 경기를 올림픽 대표 이근호의 두 방에 놓치며 홈팀 대구 FC와 2-2로 비겼다. 전남은 이로써 올 정규시즌 2무1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반 4분 일본계 브라질 용병 산드로 히로시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넣어 선제골을 뽑아낸 뒤, 또 다른 용병 산드로 카르도소가 후반 6분 추가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 했다.

전남은 그러나 올림픽대표로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올림픽 예선에서 맹활약한 대구의 이근호에게 후반 17분과 후반 인저리타임때 연속골을 내주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다.

FC서울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3분에 터진 박주영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두며 정규리그 3전 전승으로 울산, 성남, 포항(이상 2승 1무)을 단번에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박주영은 지난 해 10월25일 성남전 이후 4개월여 만에 K-리그 골맛을 봤고, 올 시즌 마수걸이 득점포를 신고했다.

한편 광주 상무는 지난 17일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지난 시즌 챔피언 성남과의 경기에서 남궁도의 만회골에도 불구하고 1-3으로 패하며 정규 시즌 3연패의 늪에 빠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